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10월 근원 CPI 예상 상회…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 WSJ: 골드만삭스 “고물가 지속 시 금리 인상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 CNBC:연준 이사 Waller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0.5%p도 가능"
- TheEconomist: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의 향방: 타협인가 실패인가?

[미국 금융]
- WSJ: 앤트로픽, 기업공개에서 몸값 1조 3천억 불 목표
- JP Morgon: 아시아 AI 골드러시

[오일]
- WSJ: 트럼프의 대이란 완화 입장에 유가 하락세

[중국 경제]
- CNBC: 중국 무역 상품 흑자, 2년 연속 1조 달러 돌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링, 250불 날아다니는 보안 카메라 공개
- Bloomberg: 알파벳, 텍사스에 배송용 드론 공장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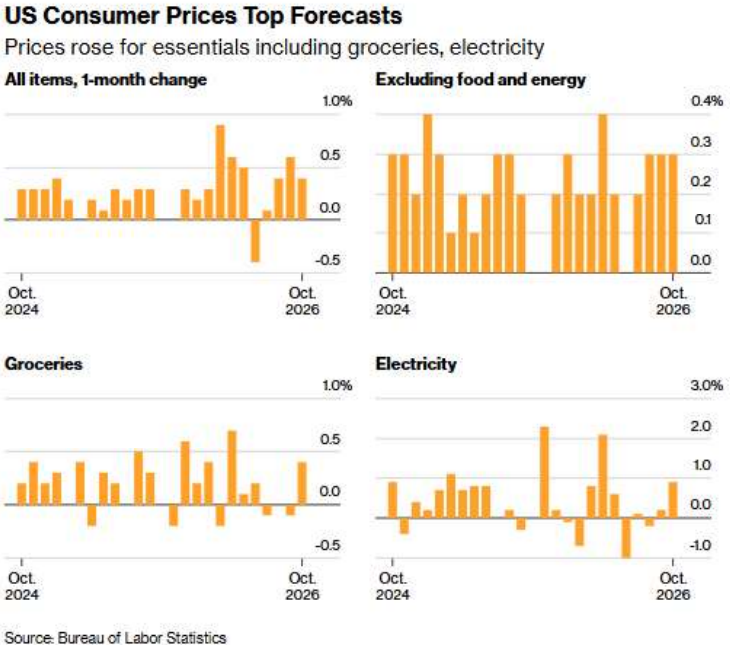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re CPI Rises by More Than Forecast, Supporting Fed Hike
미 10월 근원 CPI 예상 상회…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 미국의 10월 근원 물가가 예상을 넘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준이 다음달 12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화요일에 따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올라 3개월 연속 전망치를 웃돌았다. 식료품과 전기료 등 필수재 가격이 올라 전체 CPI도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 이번 지표는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을 내세워 상·하원을 석권한 중간선거 직전까지 물가 압력이 지속됐음을 보여준다. 올해 중동 전쟁과 관세, 데이터센터 건설 붐 등이 물가를 끌어올린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사

WSJ: Goldman: Hot Inflation Data Could Mean More Rate Hikes Next Year
골드만삭스 "고물가 지속 시 금리 인상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멀티섹터 채권 투자 책임자 Lindsay Rosner는
- "강하게 나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그는 "CPI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이 한층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 그는 "AI 시장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상은 골드만 삭스의 기본 시나리오이며, 끈질긴 물가 상승세로 인해 2027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CNBC: Fed Governor Waller sees December hike likely, opens door to possible half-point increase
연준 이사 Waller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0.5%p도 가능"

-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는 12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0.5%포인트 인상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다만 향후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지난 10월의 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했다
- 그는 런던에서의 연설에서 "인상의 정확한 시점보다 약속된 금리 인상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TheEconomist: The future of Trumponomics: compromise or failure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의 향방: 타협인가 실패인가?

-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럼프는 거부권이 있지만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 12월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복지 혜택 확대가 맞물려, 결국 양쪽 모두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해 연방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 무작정 건설을 제한하기보다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거대 IT 기업들이 전력망 확충 비용과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부담을 나누는 선에서 양쪽의 타협점이 잡히고 있다.
- 아울러 거센 반발을 사는 관세 인상과 강경한 이민 단속 역시 법원 판결이나 민주당과의 협상을 명분 삼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

기사

[미국 금융]

WSJ: Anthropic to Seek $1.3 Trillion Valuation in IPO
앤트로픽, 기업공개에서 몸값 1조 3천억 불 목표

-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이 IPO를 통해 약 1조 3천3백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계획이다.
- 주당 70~78달러 가격대로 8억 2천5백만 주를 매각해, 공모가 범위 중간값 기준 6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과 AMD 등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26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 이번 증시 진입은 과열된 AI 투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사

JP Morgan: Inside Asia's AI Gold Rush
아시아 AI 골드러시

1. 글로벌 경제: 아시아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 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3.1%, 내년 3.4%로 전망하며 견조함 속에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인플레가 4.7%로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 비용과 고령화에 시달리는 유럽은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한국·중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상향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2. 시장 분위기: 실질적인 AI 투자수익률과 수익성 검증 상황
   -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투자 심리는 유지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AI 투자수익률(ROI)과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 신흥국 시장은 선진국 대비 우수한 재정 건전성과 물가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받고 있다.

3. AI 설비투자: 부채 의존도와 전력망 부담 증가
   - AI 설비투자 규모는 올해 9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며,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로 동북아시아 공급 기업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
   - 다만 이 같은 확장이 부채 조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망 부하 문제로 정부 차원의 제동이 걸리고 있다.

4. 미·중 관계: 표면적 안정 속 공급망 재편
   - 양국 정상회담으로 긴장은 완화됐으나 근본적 갈등은 미해결 상태다.
   - 중국 자본이 동남아·유럽·남미로 분산되면서, 아세안 내에서는 기술 및 제조 기반을 갖춘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이 수혜를 보는 반면 독일 등 유럽 제조 산업은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타격이 우려된다.

5. 자금 흐름: 신흥국 재유입과 사이버 보안 리스크
   -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가운데 지역별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 한편, AI 발전으로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간이 수분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금융권 내 사이버 보안 대응력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Extend Decline After Trump Signals Restraint on Iran
트럼프의 대이란 완화 입장에 유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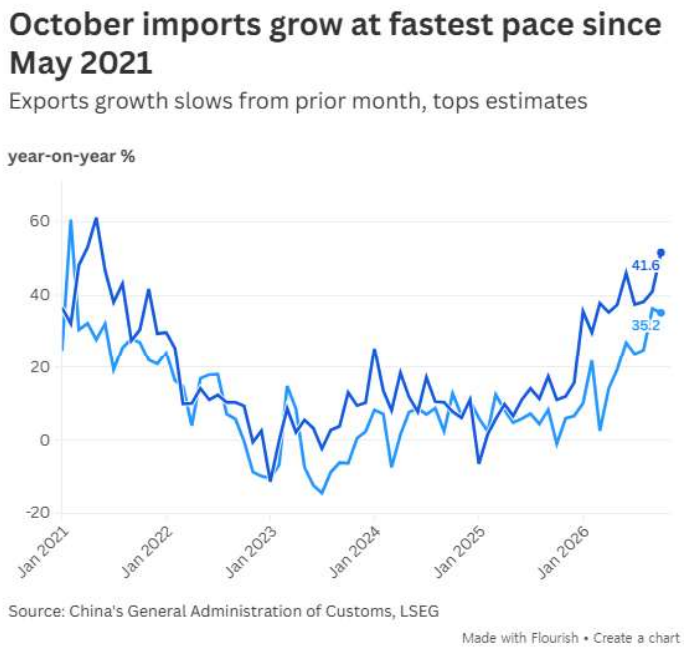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타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오늘 화요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2.1% 내린 90.61달러, 서부 사스산 원유 선물은 1.9% 내린 85.18달러를 기록했다.
- 한편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오늘 화요일 갤런당 3.97달러로 떨어지며 4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다.

기사

[중국 경제]

CNBC: China's goods surplus tops $1 trillion for a second year amid calls for Beijing to rebalance trade
중국 무역 상품 흑자, 2년 연속 1조 달러 돌파

- 중국의 올해 1~10월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단기간에 1조 달러를 돌파하며 2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섰다.
- 글로벌 통상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유럽연합 등 교역국들의 시정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2% 급증해 시장 예상치(33.5%)를 상회했다. 입 역시 2011년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4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미·중 무역 휴전 시한이 종료되고 유럽과의 통상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무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s Ring Unveils $250 Flying Security Camera After Delays
아마존 링, 250불 날아다니는 보안 카메라 공개

- 아마존의 보안 브랜드 링(Ring)이 수차례 출시 지연 끝에 실내용 비행 보안 드론인 '링 드론 캠(Ring Drone Cam)'을 250달러에 공개하고 내년 1월 출하를 시작한다.
- AI 기반의 이 드론은 2K 해상도로 5~8분간 비행 촬영이 가능하다.
- 아울러 링은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 아스트로(Astro)를 재단장하여, 4K 영상 녹화가 가능하고 공장이나 사업장 등 상업용 환경을 겨냥한 1천 달러 짜리 자율주행 보안 로봇 '링 로버 캠(Ring Rover Cam)'도 함께 선보였다.



The $250 Ring Drone Cam will begin shipping in January. *Photographer: Chris Welch/Bloomberg*

기사

Bloomberg: Alphabet's Wing to Build New Texas Factory for Delivery Drones
알파벳, 텍사스에 배송용 드론 공장 신설

- 알파벳의 자회사인 드론 배송사 윙(Wing)이 늘어나는 신속 배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최대 1억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포트 Fort Worth에 신규 공장을 짓는다.
- 약 1만 5천 스퀘어 피터 규모의 시설은 연간 수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최대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윙은 주요 유통업체인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재 5개 대도시권인 미국 내 배송 서비스 지역을 2027년까지 약 20개 시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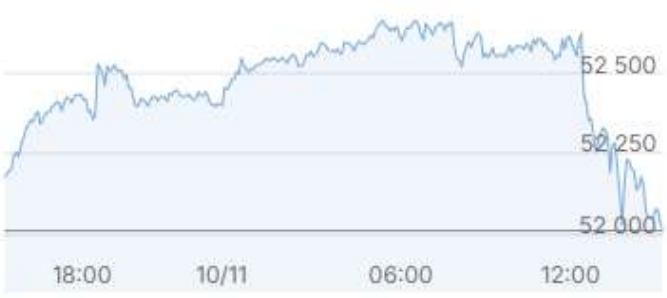
MADISON KIRKMAN/AP CONTENT SERVICES FOR WING/ASSOCIATED PRESS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총리와의 회담 후 이란과의 전쟁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으며, 이란과의 80억 달러 규모 협상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주간 기준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다만 이란은 80억 달러 동결자산 해제 조건의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을 부인했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요구를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는 등 협상 타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에 접촉한 유조선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항법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혀 해협 통항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았고, 리야드 아람코 건물이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 이라크 최대 유전과 쿠르드 주요 가스전도 드론 공습을 받아 생산이 중단됐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2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A 30	52,049.20	-340.7	-0.65%
USA 500	7,498.20	-51.6	-0.68%
US Tech 100	27,704.20	-203.4	-0.73%
Dow Jones	52,055.90	-333.85	-0.64%
S&P 500	7,498.33	-51.50	-0.68%
S&P 500 VIX	20.69	+0.77	+3.87%
Dollar Index	102.22	+0.685	+0.67%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 1/32	5.358	0.074
10-Year Note	4.625	-8/32	4.999	0.104
7-Year Note	4.875	-29/32	4.902	0.126
5-Year Note	4.75	-28/32	4.831	0.139
3-Year Note	4.625	-1 2/32	4.798	0.192
2-Year Note	4.625	-25/32	4.757	0.189
1-Year Bill	0	5/32	4.537	0.172
6-Month Bill	0	4/32	4.420	0.125
3-Month Bill	0	3/32	4.232	0.091
1-Month Bill	0	0/32	3.955	-0.001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